

일본의 독도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1420
----------	-------

발의연월일 : 2011. 4. 4.

발 의 자 :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장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재천명하고,

일본 정부가 2011년 3월 30일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왜곡하여 기술·표기한 중학교 사회교과서를 검정 승인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측의 거듭된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일 양국 간 신뢰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이 됨은 물론, 최근 일본의 대지진 이후 이루어진 인도적 지원으로 돈독해진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하고,

일본 정부가 사회교과서의 검정 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국 영토로 왜곡하여 기술·표기한 중학교 사회교과서를 검정 승인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할 것인바, 이를 엄중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가 청소년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는 행위를 중단하고 사회교과서의 검정 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행위는 일본 동북태평양 연안지역의 대지진 이후 한일 양국간 선린 우호 관계가 한 단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미래의 양국관계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가 계속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더욱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일본정부는 2008년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았고, 이에 따라 2011년 3월 30일 독도를 일본 영토

로 왜곡하여 기술한 중학교 사회교과서를 검정 승인하여 발표하였음.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사회교과서에 대한 검정 승인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서 한·일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미래의 양국관계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왜곡하여 기술·표기한 사회교과서를 검정 승인한 것이 한·일 양국 간 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직시하여 교과서 검정 승인을 즉각 취소하도록 하기 위함임.

또한 우리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관점에서 더욱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임.